

■ '광주미술관회' 서울 미술관 투어 현장

# 거장들의 名畫에 취하다

지난해 루벤스전이 열리기는 했지만 광주에서 블록버스터급 전시회를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지난 2004년 모임을 꾸린 (사)광주미술관회(회장 김용서)는 지금까지 사갈전, 달리전, 반고전 등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열린 전시회를 꾸준히 방문하며 미술애호가들의 문화적 갈증을 풀어주는 오아시스 역할을 해왔다.

(사)광주미술관회가 14일 회인, 일반 참가자들과 서울 미술관 투어를 다녀왔다. 클림트 황금빛 비밀전, 풍피두 센터 특별전, 한국근대미술결작전. 전시 면면이 화려하다 보니 45명 모집에 400여명이 몰릴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했다. 이날 투어에 참여한 사람들은 20대~70대까지, 직업도 화가, 교육자, 대학생, 회사원, 주부 등 다채로웠다.

15일 오전 7시 광주문화회관 앞에서 버스가 출발했다. 버스에서 미술 관련 DVD를 감상하며 도착한 곳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아시아 최초의 클림트 단독전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개관전부터 이미 100여m 이상 긴 줄이 이어져 있었다.

## 45명 모집에 400명 몰려 “문화 갈증 확 풀었어요”

1층 전시장에서는 ‘감머서 공원의 산책로’ 등 녹색을 주제로 한 화려한 풍경화가 눈길을 끌었다. 대형벽화 ‘베토노 프리즈’와 오리지널 포스터 등도 볼 만했고 2층에서는 에르빈 드로잉과 초상화가 주 전시품이었다.

역시 압권은 목이 잘린 남자의 머리를 들고 있는 ‘유디트 1’. 클림트 작품 특유의 금색과 반쯤 감은 몽환적인 눈빛과 얼굴 표정들은 그림 앞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마력이 있었다. 이미 도판으로 많이 봐왔지만 ‘실제 작품’만의 범접할 수 없는 ‘색채’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풍피두센터 특별전-화가들의 천국’ 역시 인상인해였다.

이곳에서는 ‘쾌락’, ‘허무’, ‘공요’ 등의 주제로 나뉘는 마티스, 칸딘스키, 미로, 달리, 피카소, 사갈, 루오 등 서양미술사의 대표작품을 대거 만날 수 있었다.

특히 화사한 빛깔의 피에르 보나르와 다수 작품이 전시된 브라크의 그림 앞은 관람객들이 많았다.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를 모티프로 고흐, 고흐, 세잔스 등을 등장시킨 블라디미르 두보나르스키의 그림은 미소 짓게 했다.

풍피두전 관람후 참가자들은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 덕수궁 미술관에서 열리는 ‘한국근대미술결작전’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때, 이중섭, 박수근, 구보웅 등 한국 대표작가들의 작품은 관람객들을 행복하게 했다.



(사)광주미술관회가 진행한 서울미술관 투어 참가자들은 14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풍피두 특별전 등을 관람했다.

친구 3명과 함께 참여한 최은정(여·70)씨는 뻑뻑한 일정이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예술에 감명받고 행복을 느끼는 건 나이와 관련이 없다”며 “클림트와 마티스의 작품이 좋았고 오지호, 김환기 등 우리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볼 수 있어 너무 즐거웠다”고 말했다.

점심식사도 버스 안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할 정도로 강행군이었지만 예술적 향취를 물씬 느낀 참가자들은 뿌듯해했다.

(사)광주미술관회는 미술관 탐방과 함께 미술이론강좌, 유명작가 초대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1-609-5844.

/서울=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오드리 햅번 등 사진 담은 ‘카쉬전’ 불만

클림트전은 오는 5월 22일까지 계속되지만 풍피두전과 근대미술전은 오는 22일로 막을 내린다. 하지만 클림트전을 보고 한 층만 위로 올라 가면 멋진 전시가 기다리고 있다. ‘인물사진의 정석’으로 불리는 캐나다 출신 사진작가 카쉬전이다.

단아한 옆모습의 오드리 햅번(사진)을 비롯, 헬렌 켈러의 노년 모습과 처칠, 아인슈타인, 해밍웨이 등의 사진은 깊은 울림을 준다. 특히 각 사진에 얽힌 촬영 에피소드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놓치면 정말 아까운 전시다. 서울 전역에 흩어진 미술관 투어가 힘들다면

예술의전당에 집중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두 전시 이외에도 디자인미술관에서는 ‘문자놀이 전’, ‘동화속 세계여행’, ‘찰스잉크 전’ 등이 열리며 김수호 주연의 연극 ‘말바닥에서’, 서울연극제 등 공연으로도 대거중이다.



## 소의 계층을 위한 ‘클래식 음악 교육’

### 전남대예술연 ‘도레미’ 운영...19일까지 모집

전남대예술연구소가 광주 북구 지역 문화 소외 계층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선정된 전남대 예술연구소는 ‘도레미-미래의 꿈나무’를 위한 음악교육 프로젝트(이하 도레미)를 운영한다.

‘도레미’는 18일부터 9개월간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강의는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전남대 음악학과 대학원생 출신 25명이 전문 강사로 나선다. 강의내용은 피아노·국악기·관현악기·합창 등 다양하다.

15일 피아노는 예술대 연습실에서 1대 1 개

인 레슨(30분) 형태로 진행되며 관현악과 국악은 바이올린과 플루트, 단소와 장구 가운데 선택, 그룹 수업을 받는다. 합창은 전체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비 15만원 중 12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3만원이다. 악기와 교재는 모두 연구소가 준비한다. 프로젝트가 끝나는 내년 1월에는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며 강의 중에도 연주자들을 초청, 작은 음악회를 열 계획이다.

프로젝트 책임을 맡고 있는 신수경(전남대 음악학과·사진)교수는 “도레미는 문화 혜택을 받기 어려운 초등학



생들에게 체계적인 클래식 음악 교육을 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이들이 합주나 합창을 하면서 사회 적응력을 키우고 예술대 졸업생들에게는 일자리를 주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마감은 오는 19일까지며 4월부터는 매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062-530-301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HD장편영화 ‘뷰티풀데이’ 관객과의 만남

### 내일 광주시청서 시사회

영화 ‘워낭소리’로 독립영화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7시 광주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영화제작자 최초 HD장편영화 ‘뷰티풀데이’가 관객을 만난다.

영화 ‘뷰티풀데이’는 여순사건의 아픔을 그린 ‘에기섬’의 감독으로 알려진 장현필 감독이 2006년부터 2년간의 노력으로 탄생시킨 두 번째 작품으로 광주·

전남 최초의 HD장편예술영화다.

영화에는 몰락한 소시민 가장, 여성 우물증, 공동화하는 농촌의 노인 자연사 문제를 대변하는 각기 다른 세 남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담겼다.

장 감독은 영화에 남도 구석구석의 아름다운 풍광을 부드러운 왈츠 선율과 함께 담아냈다.

특히, 이른 아침 거문도 유립 해변을 배경으로 삶을 갈망하는 여인의 춤사위로 탄생시킨 두 번째 작품으로 광주·



의 남도 곳, 여수 서시장과 수산시장의 질척한 소상공인의 삶, 곡성에서 순천에 이르는 섬진강과 남도의 바다 절경 등이 관객들의 눈길을 붙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전라도의恨’은 1천년 전 시작됐다

### 향토사학자 김정호씨 ‘후백제의 흥망’ 펴내

정사에서는 소외됐던 후백제의 역사적 사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정리한 책 ‘후백제의 흥망’이 나왔다.

저자인 향토사학자 김정호(72·진도문화원장)씨는 책 제목에 전라도의 한(恨)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전라도 사람들은 한 맺힌 사람들이며 그 한은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1천년 전에 후백제의 멸망에서 기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의 후백제에 대한 시각은 독특하다. 저자는 후백제를 건국한 시조를 국정교과서에 보편화되어 있는 ‘결핵’이라는 이름 대신 ‘진핵’을 택하고 있다.

저자는 책 말미에 따로 ‘훈요십조

는 날조된 것이 다란 장을 마련해 놓고 ‘굴절된 역사’가 특정지역에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는가를 드러낸다.

그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훈요십조는 집권자들의 필요에 의해 날조된 것이며, 이 역사의 기록으로 전라도 사람들, 특히 광주사람들에게는 한 맺힌 유언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김씨는 광주일보 향토문화연구소장 등 언론계에 30여년간 재직했으며 전남도농업박물관장, 향토문화진흥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향토사 이론과 실제’ 등이 있다.

〈향토문화진흥원·1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대동문화 3·4월호 출간

대동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문화예술 잡지 ‘대동문화’ 2009년 3·4월호(총권 51호)가 출간됐다.

이번호는 기획 특집으로 ‘남도, 박도에 물을 끌어들이 옥토로 바뀌라’라는 주제로 강신겸(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교수, 박광서(전남대 경제학부)교수, 김성후(동신대 관광학과 교수) 등의 원고가 실렸다.

또 이상훈(동신대 산업디자인학과)교수, 정광진(주주) 디자이너 기획매체 팀(이사)가 참여, ‘문화관광 자원이 지역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 광주 전남 문화관광의 미래를 조망했다.

또 수채화가 정우범의 예술세계와 한 지 명인 신영식, 연극인 김창일씨, 판타지 소설가 정성민씨의 인터뷰가 실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Movie advertisement banner for '영화안내' (Movie Guide)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for Megabox, Enter Cinema, Columbus Cinema, Seniors Grand, Hami Cinema, and Zeil Cinema. Each listing includes movie titles, showtime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banner also features a 'movies' logo and the slogan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